

완도교육청, 다문화 학생들 위한 진로인성프로그램 실시

미래교육에 앞장서기 위한 '다문화 미래과학교육캠프' 운영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 40명 참여해 진행

완도교육청(교육장 김정선)은 지난 25일 ~ 26일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과학교육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미래과학교육캠프는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학교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별

자리 티셔츠), 공학 분야(네온 사인 만들기), 환경 분야(분리수거 블록 코딩) 교육이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완도교육청(교육장 김정선)은 학생 모집 및 관리 뿐 아니라 캠프 진행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한 문구세트도 지원했다. 완도군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 학생 모집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잘 이루어졌다. 캠프에 참여한 박장서(완도초5)는 "평소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완도교육청 교육장(김정선)은 "미래교육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가 더욱 성장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캠프 경험은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청-동신대, 난독 학생 위해 '맞손'

선별 도구 개발·진단 및 치료·교원 역량 강화 등 업무협약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29일 동신대 중앙도서관에서 읽기 곤란(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교육청과 동신대는 읽기 곤란(난독) 학생의 진단 및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 읽기 곤란(난독) 학생 선별검사 도구 개발 △ 진단 및 치료지원 △ 지역사회 치료 지원 기관의 전문성 검증 △ 교원의 읽기 곤란(난독) 학생 지도 역량 강화 △ 그 밖의 난독 학생 치료지원 및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동신대와의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진단 및 치료지원 뿐 아니라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치료지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기관의 전문성 검증 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난독 학생 및

충형 지원을 통한 교육결손 해소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시작이다."라며 "오늘 동신대와 전남교육청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난독 학생의 조기 선별, 전문적 진단 및 치료 지원을 통한 교육결손 해소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대학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대학이 기여해야 한다."면서 "동신대학교는 읽기 곤란(난독)학생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전남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2023년 난독 학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읽기 곤란 학생의 지원 대상을 '난독중·학생에서 '난독'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로 확대하는 등 읽기 곤란 학생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희면기자

목포교육청, 2024학년도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 학부모교육 실시

관내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 학부모 30명 참석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은 지난 26일 금요일 목포시가족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예비 초등 학부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

한 주제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 신입생들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일선 현장의 1학년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한 입학 초기 준비물(학용품, 책가방, 신발, 청소도구 등) 증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선생님의 안내 연수,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가족센터, 학마을 봉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함께 행사를 준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업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여성 학부모들의 사회 적응과 이중언어 및 문화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엄마학교, 평생교육 등의 실제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현장 점검 실시

위생 안전 관리·영양 균형 등 점검 나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은 지난 30일 대불초를 방문하여 방학 중 돌봄교실 안전 관리와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돌봄 학생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직접 배식해 주면서 위생 안전 관리, 영양 균형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광수 교육장은 "지난해부터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행복도시락은 학생들이 건강을 챙겨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은 지난 30일 대불초를 방문하여 방학 중 돌봄교실 안전 관리와 참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돌봄 학생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직접 배식해 주면서 위생 안전 관리, 영양 균형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광수 교육장은 "지난해부터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행복도시락은 학생들이 건강을 챙겨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